

“주권을 지닌 우리의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을 담은 그분의 그릇들, 그분의 용기(容器)들로 만드심”

위트니스리 전집 1964 3 권 “하나님의 경륜” 5 장
출애굽기 라이프 스테디 - 메시지 21-22
로마서 라이프 스테디 - 메시지 22, 24

11/2 월

렘 18:6

6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사 64:8

8 그러나 주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렘 18:1-5

1 이것은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2 "너는 어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거라.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나의 말을 선포하겠다."
3 그래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마침 물레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
4 그런데 그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
5 그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롬 9:21

21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위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단 4:3, 4:34-35

3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 영원하고, 그 통치 대대에 이를 것이다.
34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보고서 정신을 되찾았고,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의 통치 영원하고 그의 나라 대대로 이어진다.
35 그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뜻대로 하시지만, 아무도 그가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하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셨느냐고 그에게 물을 사람이 없다.

계 4:11

11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님의 뜻에 따라 만물이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읽을 말씀: HWMR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애가 결정 연구" - 5 주차 1 일
단체로 읽을 말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9 장 - B. 팔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바꿈; C. 속임수로 아버지의 축복을 탈취함; II. 야곱이 받은 징계; A. 아버지 집을 떠남

11/3 화

행 9:15

15 그러나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에게 선택된 그릇이다.

렘 3:19

19 또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눅 1:53

53 굶주린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였고, 부자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렘 1:5, 11

5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뜻의 기쁨을 따라 우리를 미리 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11 모든 일을 자신의 뜻의 의결대로 일하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미리 정해짐으로써,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빌 2:13

13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어, 여러분이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 57:15

15 지극히 높으신 분, 영원히 살아 계시며,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우어 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 준다.

마 5:3

3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읽을 말씀: HWMR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애가 결정 연구" - 5 주차 2 일
단체로 읽을 말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9 장 - B. 베엘에서 노숙(露宿)함 (1-3 단락)

11/4 수

렘 2:1, 4

1 그런데 여러분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었습니다.
4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히 4:16

16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애 3:22-23

22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23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큼니다."

눅 15:20-24

20 그리고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다정하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21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을 거슬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도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22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노예들에게 '어서 그 제일 좋은 걸움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23 또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24 왜냐하면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되찾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였습니다.

추가로 읽을 말씀: HWMR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애가 결정 연구" - 5 주차 3 일
단체로 읽을 말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9 장 - B. 베엘에서 노숙(露宿)함 (4-8 단락)

11/5 목

롬 9:11-16, 17, 18

11 쌍둥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사람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고 부르는 분께 있다는 것을 확고히 하시려고),
12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섬길 것이다."라고 하셨으니,
13 성경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14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불의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15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16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달음질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17 성경이 바로에게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일으켜 세운 것은 너에게서 나의 능력을 나타내고 나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18 그러므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실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집스러워지게 하실 사람을 고집스러워지게 하십니다.

마 9:13

13 여러분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 제물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십시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딤후 3:5

5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긍휼에 따라 새로운 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추가로 읽을 말씀: HWMR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애가 결정 연구” - 5주차 4일

단체로 읽을 말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9 장 - C. 하란에서 받은 징계 (1-3 단락)

11/6 금

롬 9:16, 23

16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달음질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23 하나님께서 또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어찌하겠습니까?

눅 1:78

78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온 것이다. 이로써 돋는 해가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임하여,

롬 9:20

20 그러나 그대가 누구이기에 사람으로서 감히 하나님께 말대꾸합니까? 빚어진 것이 빛은 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딤후 2:20-21

20 그렇지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귀하게 되고 어떤 것은 천하게 됩니다.
 21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해지고, 주인에게 쓸모 있게 되며, 온갖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될 것입니다.

고후 4:6-7

6 왜냐하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밝히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7 그러나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딤후 1:13-14

13 전에 나는 모독하는 사람이요 박해하는 사람이요, 모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동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14 또한 우리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갖게 하셨습니다.

추가로 읽을 말씀: HWMR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애가 결정 연구” - 5주차 5일

단체로 읽을 말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9 장 - C. 하란에서 받은 징계 (4-7 단락)

11/7 토

고후 3:16-18

16 그러나 언제든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 너울이 벗어질 것입니다.
 17 더구나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이신 그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18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롬 3:23

23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롬 8:21, 23, 29-30

21 창조물 자신은 썩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23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영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 자신들도 속으로 탄식하며 아들의 자격,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29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30 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였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빌 3:21

21 그분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자신의 운행에 따라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형시켜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추가로 읽을 말씀: HWMR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애가 결정 연구” - 5주차 6일 찬송 26

11/8 주일

롬 9:15-16

15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16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달음질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롬 9:19-23

19 그러면 그대는 나에게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사람의 잘못을 나무라십니까?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20 그러나 그대가 누구이기에 사람으로서 감히 하나님께 말대꾸합니까? 빚어진 것이 빛은 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21 토기장이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위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22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노를 나타내 보이시고 그분의 능력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지만, 멸망받아야 마땅한 진노의 그릇들을 오래 참시면서 너그러이 대하셨을지라도 어찌하겠습니까?
 23 하나님께서 또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어찌하겠습니까?

엡 2:8-10

8 여러분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9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0 우리는 하나님의 결과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 선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